

전두환 재판 올해 안에 끝난다...살아 생전 사죄할까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 열려...전씨 불출석 측근 민정기 “전두환 인식 반영해 ‘거짓말쟁이’ 작성”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남은 증인신문 기일이 많아 두차례(전씨 측의 '전일빌딩 탄흔감정 시물레이션' 추가)로 예정됐고, 이후 양측의 최종 변론으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지난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시작 이후

네번째 열린 이번 재판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다. 민씨와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5·18 당시 506부대 헬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국방부의 신원확인 절차가 늦어 다음기일로 미뤄졌다.

이날 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과 검찰측의 신문이 팽팽히 대립했다. 특히 민씨가 헬기사격에 관해 1995년 검찰수사와 공판기록 등을 토대로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점이 양측 질문의 핵심이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안현태 전 경호실장을 중심으로 당시 헬기조종사, 당시 지휘관 등을 상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의 진상조사 결과와 1995년 검찰 수사결과 헬기에서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회고록을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에 대해 5·18 당시 지휘관들의 검찰조서, 보안사 입일속보철 등의 헬기사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기록 등을 본적이 있는지를 민씨에게 추궁했다.

민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본 것은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검찰은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집필할때 이러한 양쪽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또 2017년 1월 12일 전일빌딩의 헬기사격에 대한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맞섰다.

정 변호사는 “전씨의 회고록은 2016년 12월 이미 실무편집담당자에게 넘어간 이후 민씨가 이 조사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게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검찰측은 이미 원고가 넘어갔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적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회고록 자체가 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

민씨는 “190페이지가 넘는 회고록에서 5·18 관련 기술은 170페이지에 그쳐 10%도 안되는 분량이며, ‘학살이 있었느냐’는 11페이지 분량 중 헬기 사격은 6페이지 뿐이고, 111문장 중 전씨의 서술은 단지 13문장으로 대부분이 수사기록 원문을 인용하는 방식이었다”면서 “현장상황을 알지도 못한 전씨가 이를 굳이 회고록에 작성한 것은 군이 양민을 학살했다 것 자체가 당시 군 통수권자로 책임을 지기 위해 집어 넣은 것 뿐이다”고 말했다.

민씨에 대한 양측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재판부가 민씨에게 공소사실인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된 부분이 전씨의 말을 옮긴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

민씨는 “전씨의 워딩 자체에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전씨가 ‘성직자라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해가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말을 해 같은 취지로 작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기일은 9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당뇨검사 고통 사라진다...눈물 속 포도당 농도로 진단

지스트 등 연구팀, 스마트 렌즈 사용 자가 진단 시스템 개발

지스트를 비롯한 국내 연구팀이 눈물 속 포도당 농도로 당뇨 여부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침습적인 방법을 대체해 체형이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정의현 교수팀은 한양대 생명공학과 이동운 교수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인체에 무해하고 전극이 필요 없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

기존 당뇨병의 진단은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러

채취한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침습적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는 환자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침을 통한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연구팀은 혈액을 대신할 인체의 주요 체액 중 질병 상태와 상관성이 높은 눈물을 이용해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통해 당뇨 진단 가능성을 확인하고,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을 진행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체액에서도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므로

연구팀이 개발한 콘택트렌즈는 눈물 속 포도당 수치가 따라 색이 변하고 이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연구팀은 눈물 속 포도당 농도에 따라 렌즈 속 나노입자가 발색이 되고, 색변화의 정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안구의 흔들림에 따른 측정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구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이다.

지스트 정의현 교수는 “추후 당뇨병 기술 및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일상에서 보다 정밀한 비침습적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폐현수막, 장비구니 변신 30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비구니 등을 들고 일회용품 및 스티로폼 트레이사용 감축 캠페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육청 위원회 시민참여 늘려야”

시민모임 “74개 중 전·현직 공무원 44.1% 달해”

광주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의 절반가량이 전·현직 공무원이어서 시민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교육청이 전체 98개 위원회 중 정보를 공개한 74개 위원회를 토대로 위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 916명 중 전·현직 공무원은 44.1%인 40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어 “외부 위원은 대학교수

(91명, 9.9%), 학교관리자(70명, 7.6%), 비영리민간단체(60명, 6.6%) 등 특정 직업에 편중돼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특히 학생, 여성 등이 참여에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간부도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전 학생에 교육회복지원금 15만원

전남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회복을 위한 특별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육회복 특별지원금을 확보, 지역 내 모든 학교(초·중·고·특) 재학생과 학교밖청소년 등 18만9000여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회복과 심리적 안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사용 가능 지역을 전남에 주소를 둔 카드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교육회복을 위한 본래 목적에 맞게 학습자료(서적·문구류 등) 구입·병원 치료(안경 구입 등)·공연관람·체험활동비 등에 사용해야 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동구 ‘착한상가’ 건물주 모집...최대 3백만원 지원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착한상가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동구에 따르면 1년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혹은 임대료 2년 동결을 상생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지원금은 시설 방역이나 청소, 전기·화재 안전 점검, 소규모

리모델링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동구만의 특화된 방법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운 CITY*i*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모집부서 및 자격요건(상시모집)		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지	비고
신입·경력	건축직(공무, 공사)	○명	신입 및 경력	본사 및 현장	정규직
	토목직(공무, 공사)	○명			
	조경직(공무, 공사)	○명			
	안전관리직(본사, 현장)	○명			
	전기, 소방	○명			
	기계설비	○명			
	주택사업	○명			
분양사업	○명	·신입 : 학력무관 ·경력 : 공동주택 A/S, C/S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연락처 필히 기재요망)
- 2차 : 면 접(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서류

- 이 력 서 : 사진, 우측상단엔 응시분야 기재, 희망연봉 및 긴급연락처 명기
-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위주로)
- 기술인협회 발행경력증명서
- 해당 기술자격증 사본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9월 1일 ~ 9월 30일
- 접수방법 : E-mail 접수(gowoon205@nate.com)
- 전 화 : 062-225-930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급여는 당사규정 및 실무 경력에 따라 협의